

제 V 부

시 제와 相

제16장에서는, 시제를 강의 흐름, 相을 배의 언급점으로 하는 비유로 시제와 相의 관계를 도시(図示)한다.

확실성의 척도를 채용한다.

「현재」를 형식별로 3종류로 나눈다.

複文에서 두 이벤트간의 관계를 図示한다.

제17장에서는, 시제와 相의 관계를 2자리수(桁數)로 표시한다. 2자리수로 표시하는 것에 의해, 자세한 상황설명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또, 간단히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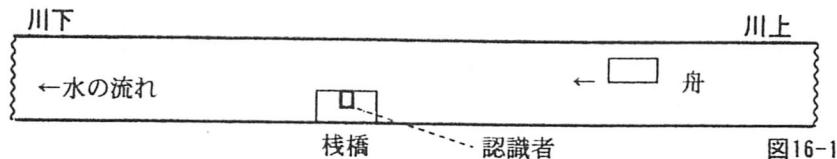
제16장

시제와 相

16.1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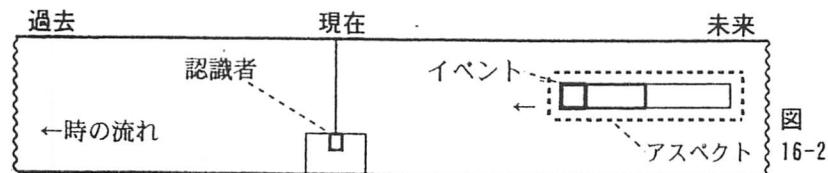
a) 강의 흐름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 간다. 지금, 한 사람의 認識者가,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튀어나온 잔교(棧橋)의 끝에 서 있다고 하고, 상류에 배가 떠 있다고 하자. 그 배는 물이 흐르는 대로 인식자에게 접근해 오고, 옆을 지나, 하류로 떠내려 간다. (배는 떠 있을 뿐이고, 동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b) 시간의 흐름……시간의 흐름을 강의 흐름에 비유한다.

시간도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 간다. 인식자는 시간의 흐름에 튀어나온 현재라는 잔교(棧橋)의 끝에 서 있다. 미래의 이벤트는 화자(話者)가 상류에 띄운 예정·예상이라는 이름의 배이다. 그 배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접근해 온다. 이벤트는 相을 동반하고 있다. 이벤트는 미래에 있어서는 예정·예상이지만, 현재라는 잔교의 장소에서 현실세계에 실현, 확정된 것이 되고, 과거로 흘러 역사적 사실이 된다.



이 그림에 있는 相의 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동작단위이벤트」 상(相)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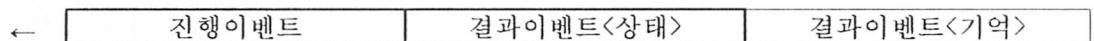


図16-3

「존재단위이벤트」 상(相)의 배



図16-4

c) 과거와 非過去

인식자가 미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이벤트의 배가 접근해 오고, 이윽고 배의 부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어 가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미래와 과거의 경계선이고, 현재라고 불리워지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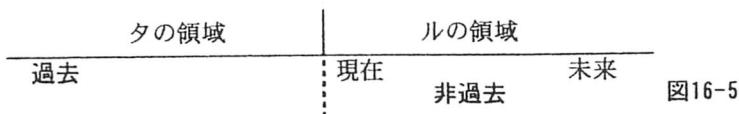
이 경계면인 현재는 미래와 과거의 어느쪽에 속하는 것일까. 「보이는 최후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속하고, 「보이지 않게 되는 최초의 시점」이라 생각하면 과거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의사(意思)에 의한 제어가 통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제어가 들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과거)는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제어가 통하는 최후의 시점이 현재이므로, 현재는 미래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확실히, 일본어에서는 현재를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루고 있다. 시제를 「과거/현재·미래」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과거/비과거」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d) 시제……ル의 영역, タ의 영역

현재라는 잔교(棧橋)의 위에 서서 미래의 이벤트를 보면, 그 배의 앞부분이 보인다. 개시 전의 국면이 보인다. 그것은 -(r)u (ル)로 파악하는 국면이다. 일본어에서는 미래이벤트는 개시 전의 국면 「ル」로 파악한다. 그래서, 미래(따라서 비과거)의 시제는 「ル」로 표시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라는 잔교 위에 서서 과거이벤트를 보면, 그 배의 뒷부분이 보인다. 완료 후의 국면이 보인다. 그것은 =t-Ø=a(r)-(タ)로 파악하는 국면이다. 일본어에서는 과거이벤트는 완료후의 국면 「タ」로 파악한다. 그래서, 과거의 시제는 「タ」로 표시되는 것이 된다³³⁾.



16.2 相 언급점

화자(話者)는 이벤트를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이벤트를 시간의 흐름상에 놓고 표현 할 때가 있다³⁴⁾. 그 경우, 단위이벤트를 하나로 정리해서, 단순한 미래, 단순한 과거로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이벤트 이딘가의 국면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언급하는 것에 의해 이벤트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 어떤 국면이 화자(話者)에 의해 선택된다. 이 선택된 국면을 「相 언급점(言及点)」 또는 단순히 「언급점」이라 부르기로 하자.

「언급점」이라고는 해도, 물론 점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적 폭을 가지는 것도 있다.

상 언급점은 화자가 이벤트의 사전을 찍으려고 할 때에 설정하는 초점과 많이 닮아 있다.

33) 여기에서, 일본어에서는 시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론도 생길 수 있지만, 이벤트는 시간중에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제와의 관련에서 파악하는 편이 보다 좋은 이해로 연결 될 것이다.

34) 이벤트를 시간의 흐름상이 아니라, 관념의 「제방」위에 놓으면, 그것은 이벤트를 일반적·보편적·개념적인 것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된다(13.4뒷부분 참조).

화자는 그 언급점을 향해 카메라를 준비한다.

언급점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7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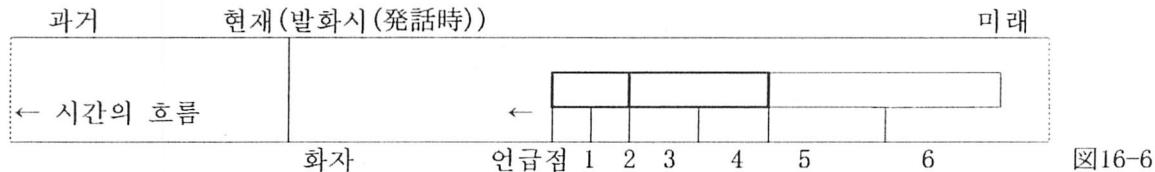
- 1 開始(前)……………言及点 1
- 2 進行中……………言及点 2
- 3 完了(後) } ……言及点 3
- 4 進行完了(後) }
- 5 結果状態繼續……………言及点 4
- 6 結果状態完了(後) ……言及点 5
- 7 結果記憶繼續……………言及点 6

언급점에 관련된 표현은, 이벤트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갈 때에 변화한다. 시제의 흐름상에 있는 각 언급점에서, 어떤 언어형식이 사용되는 것인가를 보고 싶다. (화자의 발화시점이 현재이다. 16.5 참조)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태울 배를 2척 고른다. ④ 「짧은 단위이벤트」 (동작 이벤트의 대표로서)의 배와 ⑦ 「존재이벤트」의 배이다 (13.6.7 참조).

16.3 ④ 「짧은 단위이벤트」의 시제와 相

a) 미래 ……이벤트가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언급점 1 (미래개시) (12時に) 着物を着ル (12시에) 기모노를 입다

언급점 2 (미래진행) (12時15分ごろ) 着物を着テイル (12시 15분경) 기모노를 입고 있다

◎국면으로서가 아니라, 단위이벤트 전체의 성립으로 표현하는 경우
→ (단순한 미래) (12時に) 着物を着ル

언급점 3 (미래완료) (미래완료는 표현할 수 없다³⁵⁾.)

언급점 3 (미래진행완료) (미래의 완료는 표현할 수 없다³⁶⁾.)

언급점 4 (미래결과상태계속) (午後は) 着物を着テイル (오후에는) 기모노를 입고 있다

언급점 5 (미래결과상태완료) (미래의 완료는 표현할 수 없다¹¹⁾.)

언급점 6 (미래결과기억) (当日で5回) 着物を着テイル (당일 5회) 기모노를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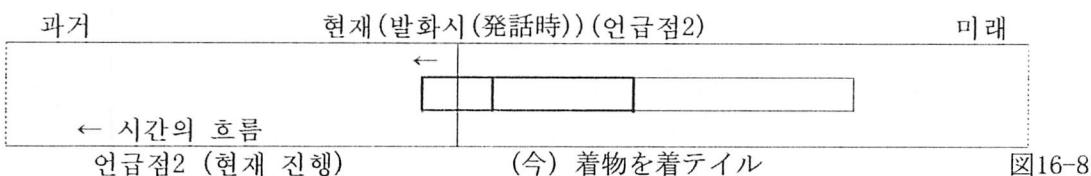
35) 연체(連体), 가상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 많다. 연체는, 16.7 b) 참조.

가상은, 의식 중에서 미래완료의 인지 「よし, 買った!(좋아, 샀어!)」를 비롯, 보통의 조건표현이 있다.…… 「着物を着たら(미래완료)写真を撮ろう(기모노를 입으면 사진을 찍자)」「そのときまで着物を着ていたら(미래결과상태완료), すぐにシャワーを浴びなさい(그때까지 기모노를 입고 있을 거라면, 곧바로 샤워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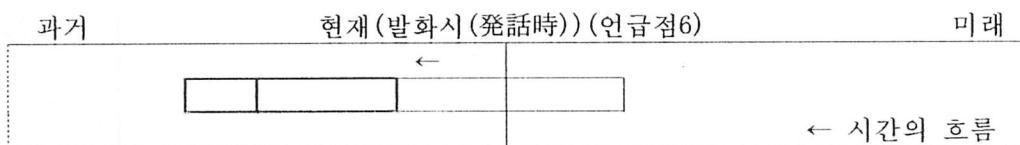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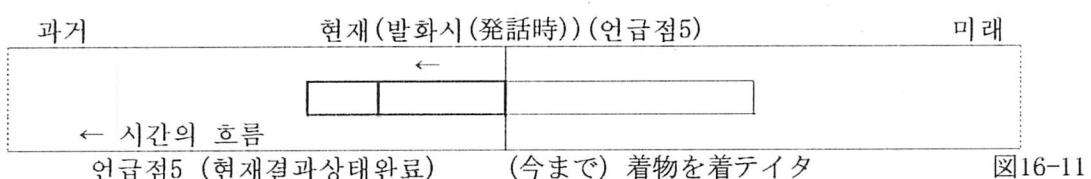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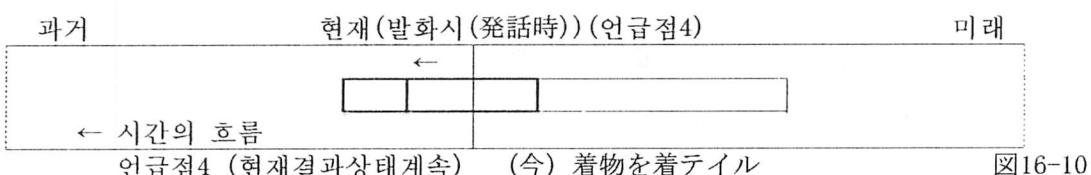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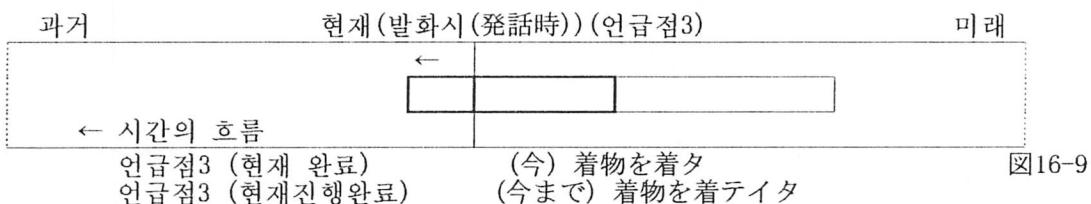
36) 16.3 a) 주(注) 참조.

b) 현재……이벤트가 현재인 경우

화자의 위치와 언급점의 위치가 일치한다.



◎국면으로서가 아닌, 단위이벤트 전체의 성립으로 표현하는 경우
→ (단순한 현재) 着物を着ル



비과거인 미래와 현재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와 달리, 발화(發話) 시점에서 완료를 볼 수가 없고, 표현할 수 없다.

c) 과거……이벤트가 과거가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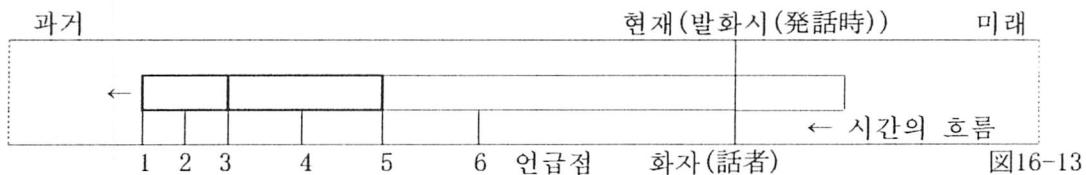


図16-13

언급점1 (과거개시) (과거의 개시는 표현할 수 없다³⁷⁾.)

언급점2 (과거진행) (7時45分ごろ) 着物を着テイタ (7시45분쯤)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국면으로서가 아니라, 단위이벤트 전체의 성립으로서 표현하는 경우
→ (단순한 과거) (7時半に) 着物を着タ (7시 반에) 기모노를 입었다

언급점3 (과거완료) (8時に) 着物を着タ (8시에) 기모노를 입었다

언급점3 (과거진행완료) (8時まで) 着物を着テイタ (8시까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급점4 (과거결과상태계속) (午前中は) 着物を着テイタ (오전중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급점5 (과거결과상태완료) (正午まで) 着物を着テイタ (정오까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급점6 (과거결과기억) (当日で5回) 着物を着テイタ (당일 5회)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이상, 「짧은 이벤트」에서는 시제와 相의 관계를 4가지의 언어형식이 분담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출현 회수를 세어 보자.

(着)ル (3회) (着)テイル (6회)

(着)タ (3회) (着)ティタ (7회)

相 표현형식이 발달된 언어라면, 좀더 많은 언어형식을 준비하고, 각각의 형식의 역할을 보다 상세하게 한정할 것이다.

16.4 ⑦ 「존재단위이벤트 (いる, ある 등)」의 시제와 相

a) 미래……이벤트가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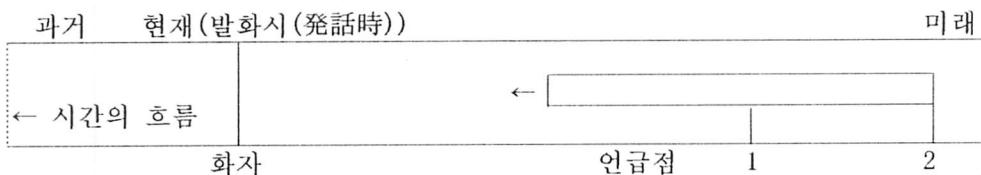


図16-14

언급점1 ◎단순한 미래 (12時に研究室に)いル (12시에 연구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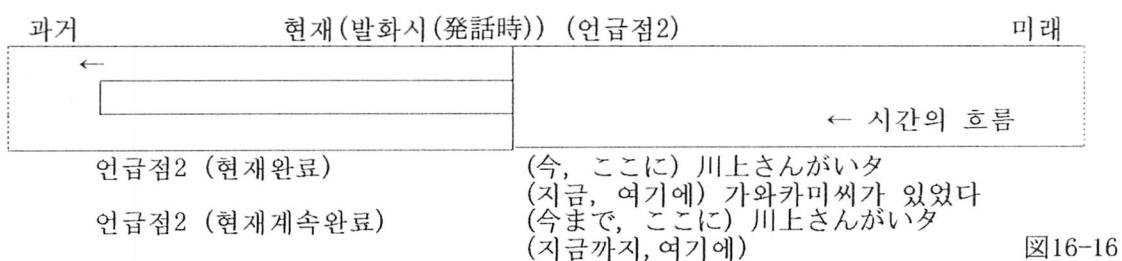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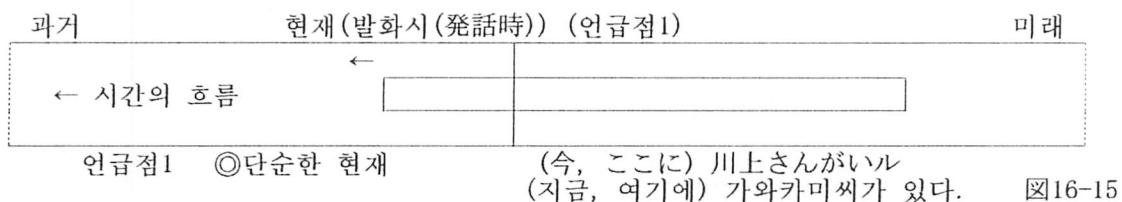
언급점2 (미래완료) (미래의 완료는 표현할 수 없다³⁸⁾)

언급점2 (미래계속완료) (미래의 완료는 표현할 수 없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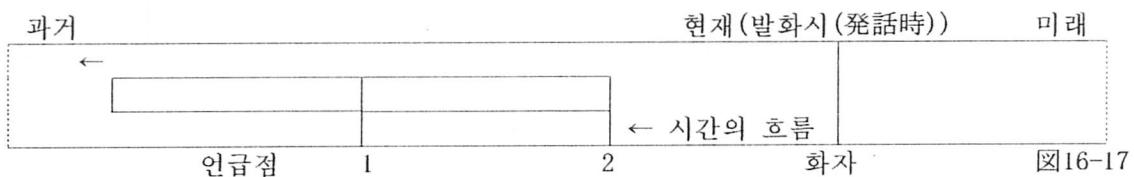
37) 16.3 a) 주(注)참조. 가상은 「着物を着るなら(과거 개시), シャワーを浴びればよかつたのに(기 모노를 입은 거라면, 샤워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38) 16.3 a) 주(注)참조. 가상은 「最後までここにいたら(미래완료), ご褒美をあげます(최후까지 여기 있으면, 포상을 줍니다)」

b) 현재……이벤트가 현재인 경우



c) 과거……이벤트가 과거가 된 경우



언급점1 ◎단순한 과거 (あのとき, あそこに) 川上さんがいタ
(그 때, 거기에) 가와카미씨가 있었다.

언급점2 (과거완료) (あのとき, あそこに) 川上さんがいタ
(그 때, 거기에) 가와카미씨가 있었다.

언급점2 (과거계속완료) (あのときまで, あそこに) 川上さんがいタ
(그때까지, 거기에) 가와카미씨가 있었다.

「존재단위이벤트」에서는 「(이)ル」와 「(이)タ」의 두 개의 형식밖에 없다. (완료는 존재 그 자체의 완료가 아니다. 13. 7c) 참조.)

d) 정리표……이상의 시제와 相의 형식 관계를 표로 나타냈다.

표 16-1

시 제	시제와 상(相)	동작이벤트	존재이벤트
비 미래	단순한 미래	着ル	いル
	미래개시	着ル	
	미래진행(계속)	着テイル	
	미래완료		
	미래진행(계속)완료		
	미래결과상태계속	着テイル	
	미래결과상태완료		
	미래결과기억	着テイル	
과 현재	단순한 현재	着ル	いル
	현재개시	着ル	
	현재진행(계속)	着テイル	
	현재완료	着タ	いタ
	현재진행(계속)완료	着ティタ	いタ
	현재결과상태계속	着テイル	
	현재결과상태완료	着ティタ	
	현재결과기억	着テイル	
과 거	단순한 과거	着タ	いタ
	과거개시		
	과거진행(계속)	着ティタ	
	과거완료	着タ	いタ
	과거진행(계속)완료	着ティタ	いタ
	과거결과상태계속	着ティタ	
	과거결과상태완료	着ティタ	
	과거결과기억	着ティタ	

16.5 3종류의 「현재」

위에서는 「현재」를 단지 「현재」로서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현재」라고 불리워지는 「시간」에는 「절대현재(絶対現在)」·「발화현재(発話現在)」·「설정현재(設定現在)」의 세 종류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떤 「현재」에 대해서도, 위의 그림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발화자(發話者)는 이들 현재를 능숙하게 짜맞추면서, 효과적인 발화를 행한다.

a) 절대현재

「절대현재」는, 정확한 시제가 시시각각 알리는 한순간 한순간의 새로운 시작 그 때를 현재로 하는 것으로, 모든 이벤트가 「절대현재」에서 현실세계에 실현된다. 발화(기술(記述) 포함)도 이벤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발화가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은 「절대현재」에서이다.

b) 발화현재

그러나, 한번 실현된 이벤트는, 그것이 실현된 순간에 과거로 운반되어 간다. 발화(發話)도 이벤트이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발화내용 중에 예를 들면, 「지금(지금)」라는 말로 고정된 「현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 「절대현재」로서의 「지금(지금)」은 아니게 되어버린다. 발화내용이 「현재」라는 시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발화가 이루어진 「시간」그것을 「시간의 기준」으로서 보존하는 한계에서이다. 이런, 발화가 이루어진 「시간」을 시간의 기준으로서 계속 보존하는 현재는 「발화현재」라고 불러야 할 현재이다. 「발화현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지만,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발화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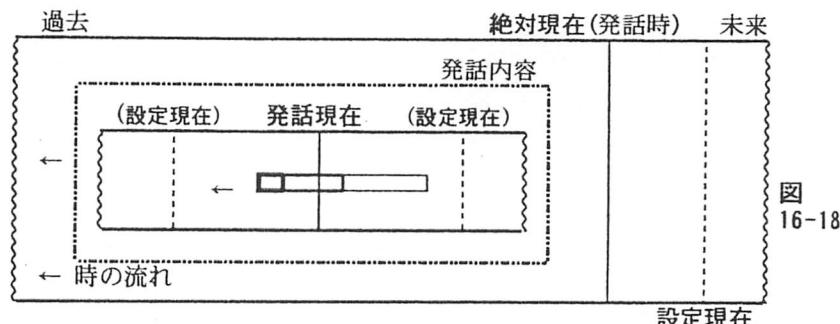
재」라는 기준이고, 계속할 수가 있다.

c) 설정현재

발화는 이벤트이므로, 「절대현재」에서 실현되는 것이지만, 그 때 발화자는 의도적으로 절대현재와는 다른 현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나 미래의 어떤 한 시점(時点)을 마치 절대현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취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현재」를 「설정현재」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역사적현재」로 불리워지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은, 어떤 이벤트를 보도할 때에, 스튜디오의 아나운서에 의한 설명에 덧붙여, 화면비디오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보도를 지향한다. 그 경우, 아나운서에 의한 발화가 현재의 인지점(認知點)으로부터의 것이라 한다면, 비디오는 과거의 인지점으로부터의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즉, 비디오내의 영상·발화는 설정현재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설정현재라는 것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과거나 미래의 한 시점(時点)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相의 배의 화상(画像)·발화를 발화시점(時点)에서 중계방송하는 것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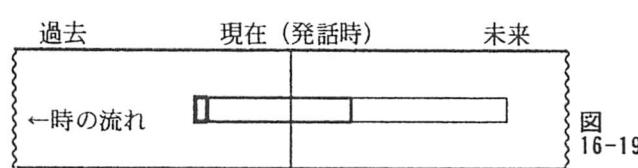


16.6 확실성의 척도

미래의 이벤트는 확실성이 낮으므로 「だろう(~일 것이다)」, 「かもしれない(~일지도 모른다)」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화자에게는 현재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도 불 확실성은 있다. 이것도 図示하도록 한다. 확실성의 척도를 세운다는 것은 어떨까. 어떤 언어형식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를 척도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확실성의 척도

→	절대확실
	80%확실
	60%확실
	40%확실
	20%확실
	확실성0%



확실성의 척도의 눈금³⁹⁾

10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

9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と思う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8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だろう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겠지

7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だろうと思う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겠지라고 생각하다

6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かもしだれない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근지도 모른다

5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か、「来ない」かわからない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근지 안 올지 모른다

40% 확실 来 (る／ている／た／ていた)かどうかわからない

오 (다／고 있다／았다／고 있었다)～근지 어떨지 모른다

16.7 복문(複文)

「복문」에는, 「주주(主舟)」의 위치를 「종주(従舟)」와의 위치관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복문」에는 주문과 종속절이 있어, 종속절속에 종속문이 있다. 주문의 이벤트를 「주(主)이벤트」 「주주(主舟)」, 종속문의 이벤트를 「종(従)이벤트」 「종주(従舟)」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럼에서는 종이벤트를 위에, 주이벤트를 아래에 그린다. (図16-20) 여기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パリへ行く(파리에 간다)」, 「靴を買う(구두를 산다)」의 두 가지 이벤트를 「とき(때)」로 연결하여 검토하여 보자. 「とき(때)」는 종이벤트가 미래나 과거에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다. 「行く(간다)」는 여기에서는 순간단위벤트이다.

a) 종속문의 相

パリへ行く-



パリへ行つテイー

図16-20

(종이벤트)

靴を買(w)- →

とき	とき
1	2

とき
3

(주이벤트)

주이벤트에는 3가지의 위치가 있어, 각각에 번호가 붙어있다. 주이벤트의 상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종이벤트의 상의 형식은 다음의 하선부(下線部)와 같이 된다.

① 주이벤트가 종이벤트보다 앞에 오는 경우……-(r)u

パリへ行k-u とき 靴を買(w)- 파리에 갈 때 구두를 산다

② 주이벤트가 종이벤트보다 뒤에 있는 경우……タ

パリへ行つタ とき 靴を買(w)- 파리에 갔었을 때 구두를 샀다

39) 江副(1985) pp. 156-159에 의함.

③ 주이벤트가 종이벤트의 기간중의 일부·동시인 경우……테イ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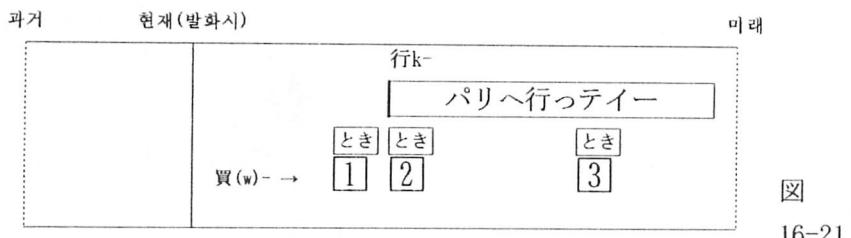
パリへ行つテイル とき 靴を買(w)-

파리에 가 있을 때 구두를 샀다

b) 복문의 시제와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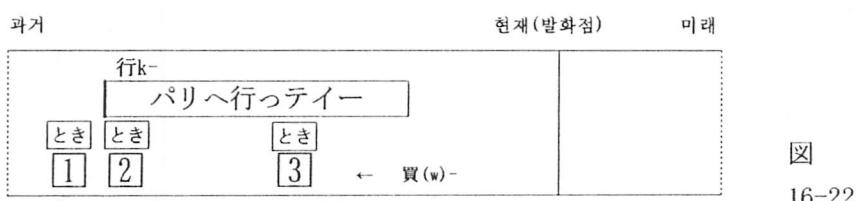
図16-20이 시간의 흐름속에 두어지면, 시제가 주문(主文) (買(w)-)에 나타난다.

「미래」



- 未 ① パリへ行k-u とき 靴を買(w)-u 파리에 갈 때 구두를 산다
 未 ② パリへ行つタ とき 靴を買(w)-u 파리에 갔었을 때 구두를 산다
 未 ③ パリへ行つテイル とき 靴を買(w)-u 파리에 가 있을 때 구두를 산다

「과거」



- 過 ① パリへ行k-u とき 靴を買つタ 파리에 갈 때 구두를 샀다
 過 ② パリへ行つタ とき 靴を買つタ 파리에 갔었을 때 구두를 샀다
 過 ③ パリへ行つテイル とき 靴を買つタ 파리에 가 있을 때 구두를 샀다

「とき(때)」를 사용하는 경우는, 從 이벤트(行k-)에도 시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고, 從 이벤트를(사전(事前)·사후(事後)의) 相에서 해방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문장도 가능하게 된다.

- 未 ② パリへ行k-u とき 靴を買(w)-u (아래표 %) 파리에 갈 때 구두를 산다
 過 ① パリへ行つタ とき 靴を買つタ (아래표 #) 파리에 갔을 때 구두를 샀다
 過 ③ パリへ行つテイタ とき 靴を買つタ (아래표 \$) 파리에 가 있었을 때 구두를 샀다

이상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 보자.

(홍콩경유 파리행)

Ⅴ 16-2

종속절		주문(主文)	구매지			파리へ行ったか (파리에 갔니?)
종속문	とき(때)		일본	홍콩	파리	
파리へ行く 파리에 가다	とき(때)	買う	未①	未①	%未②	まだ (아직)
		買った	過①	過①		帰ってきた (돌아왔다)
파리へ行った 파리에 갔다	とき(때)	買う			未②	まだ (아직)
		買った	#過①	#過①	過②	帰ってきた (돌아왔다)
파리へ行っている 파리에 가 있다	とき(때)	買う			未③	まだ (아직)
		買った			過③	帰ってきた (돌아왔다)
파리へ行っていた 파리에 가 있었다	とき(때)	買う	-	-	-	-
		買った			\$過④	帰ってきた (돌아왔다)

별씨 끝났는데 왜 「去年会っている」라고 말하는가? → p. 89

왜 「いている」라고 말하지 않는가? → p. 90

왜 「着ている人」와 「着た人」는 같은 의미인가? → p. 95

「あ、ここにあった」라고 할 때, 왜 「た」로 말하는가? → p. 97

「ステーキを食べている」라는 것은, 반복도 나타내는가? → p. 99

「米を食べててきた」는 계속, 「雪が降ってきた」는 개시? → p. 104

시제·상(相)은 강에 떠 있는 배로 생각할 수 있는가? → p. 108

「현재」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는가? → p. 114

複文이라는 것은, 강에 몇 척인가의 배가 떠 있는 것인가? → p. 116

제17장

숫자로 나타내는 시제와 相

17.1 그림의 통합

전장에서는 별개로 나타내고 있던 동작 이벤트의 현재·과거·미래의 그림(図16-6~13)을 통합하여 간략화한 그림을 작성하고, 이것을 図17-1로 한다. (존재 이벤트는 다루지 않는다.)

図17-1과 같은 형태로 그림의 통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벤트를 고정하고, 현재점(발화 시점)의 위치를 몇 가지 종류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작성한 그림에서는, 각각에 있어서, 현재점이 고정되고 이벤트가 이동되었으나, 図17-1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벤트이고, 따라서 현재점이 몇 개로 설치되게 되었다.

이 몇 개인가의 현재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에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림에서 보는대로, 00번~60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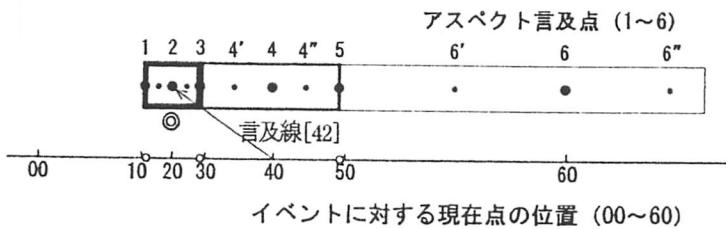


図17-1 現在点と言及点の位置関係(肯定)

언급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점을 보충하여 두고 싶다.

- 언급점◎(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전장(16.3)(図16-6등)에서 「국면으로서가 아니라, 단위이벤트 통체로의 성립으로서 표현하는 경우」라고 진술한 것을 기호로 바꾼 것이다.
- 언급점6'은 5와 6의 사이에 있다. 6''은 6보다 뒤에 있다. 마찬가지로 언급점4'는 3과 4의 사이에, 4''는 4와 5의 사이에 있다. 언급점2'는 그림에서는 점으로밖에 나타내어 있지 않지만, 1과 2의 사이에, 같은 식으로 2''는 2와 3의 사이에 있다. (대소관계는 예를 들면, $5 < 6' < 6 < 6''$ 과 같이 된다.) 각각의 「」나 「」이 붙은 보조적인 숫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현재점을 20, 40, 60에 두는 경우이다.
- 언급점2, 4, 6은, 현재점20, 40, 60에 각각 대응하는 점이다. 테두리 안의 중간점일 필요는 없고, 현재점의 위치에 응해서, 그 테두리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좋다. 또한, 점인 경우 뿐만 아니라 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언급점 0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23. 3①참고.

17.2 위치관계를 2자리수로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현재점의 위치를 2자리수로 나타내고, 언급점의 위치를 1자리수로 나타내어 있다. 이 양자를 합계함으로서 위치관계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42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시점을 현재(발화시)로서, 상 언급점 2로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読んでいた(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도출된다.

현재점과 언급점을 묶는 선을 「언급선」(図17-1 참조)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것을 [42]와 같이, 숫자를 []의 속에 넣는 것에 의하여 표시한다.

이와 같이 숫자(언급선)로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着物を着ている(기모노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개나 있는 경우, 어떠한 시간적 위치관계에 있는가, 그 차이를 자질구레한 설명 없이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02]는 「미래의 진행」

自信がないの。10時ごろ着物を着ているから、様子を見に来てくれない。

자신이 없어。10시 쯤 기모노를 입고 있을 테니까, 모습을 보러 와 줄래?

[12]는 「가까운 미래의 진행」

じゃあ、この部屋で着物を着ているから、電話が終わったら来てね。

그럼, 이 방에서 기모노를 입고 있을 테니까, 전화가 끝나거든 와.

[22]는 「현재의 진행」

今着物を着てい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

지금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22"]는 「미래의 진행(현재의 진행의 계속)」

5分後も着物を着ているから、まだパソコン通信はできない。

5분후에도 기모노를 입고 있을 테니까, 아직 컴퓨터 통신은 할 수 없다.

[04/14/24/34]는 「미래의 상태」

午後は着物を着ているから、穴堀なんかできないってば。

오후는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구멍파기 따위 할 수 있다니까.

[06/16/26/36/46/56]은 「미래의 결과기억」

来週は、もう着物を着ているから、ドレスにしよう。

다음주는, 이미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드레스로 하자.

[44]는 「현재의 상태」

着物を着ているから、あんまり食べられない。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별로 먹을 수가 없다.

[44"]는 「미래의 상태(현재의 상태의 계속)」

1時間後も、着物を着ているから、テニスはできない。

한 시간 뒤에도, 기모노를 입고 있을 테니까, 테니스는 칠 수 없다.

[66]은 「현재의 결과기억」

先週はもう着物を着ているから、今日はドレスにしよう。

지난주는 이미 기모노를 입었으니까, 오늘은 드레스로 하자.

[66"]은 「미래의 결과기억」

次の懇談会では、もう3回続けて着物を着ているから、ドレスにしよう。

다음의 간담회에서는, 벌써 3번 계속해서 기모노를 입었으니까, 드레스로 하자.

이와 같이 단순히 「着物を着ている(기모노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만도, 「02」에서 「66"」까지, 적어도 18개의 시간적 위치관계가 있다. 숫자로 나타내면, 어떠한 위치관계인 가가 간단히, 또 명확하게 특정지울 수 있게 된다.

17.3 숫자표기의 특징

여기에서, 이 숫자표기의 특징을 보아 두고싶다.

① 미래 10위의 숫자<1위의 숫자

10위의 숫자가 1위의 숫자보다 작을 때는 미래를 나타낸다. 언급선은, 오른쪽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시제는 ル형이 된다.

[01] 미래개시(~すル)

[02][12][22"] 미래진행(~していル)

[04][14][24][34][44"] 미래결과상태계속(~していル)

[06][16][26][36][46][56][66"] 미래결과기억(~していル)

[0◎](제로동그라미) 미래이벤트(~すル)

[03][13][23][05][15][25][35][45]와 같이 미래의 완료를 다루는 시간관계는 연체(連体)와 가상(仮想)의 경우에만 가능하다.⁴⁰⁾ (16.3참조)

② 현재 10위의 숫자 = 1위의 숫자

2자리 모두 같은 숫자가 들어선다('나'가 붙은 보조적인 숫자는 제외한다). 언급선은 수직선이거나 수직에 가까운 선이 된다.

②-1 [현재] 2자리 모두 같은 「짝수」의 숫자가 들어선다.

언급선은 수직선(=시제는 ル형)이 된다.

[22] 현재진행⁴¹⁾ (~していル)

[44] 현재결과상태계속⁴¹⁾ (~していル)

[66] 현재결과기억 (~していル)

[2◎](2동그라미, 20동그라미) 현재이벤트 (~すル)

②-2 [가까운 미래 · 가까운 과거] 2자리 모두 같은 「홀수」의 숫자가 들어선다.

언급선은 수직에 가까운 것이 된다.

[11] 현재개시(가까운 미래) (~すル)

언급선은 위쪽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선(=시제는 ル형)이 된다.

40) 난폭한 명령인 「買った、買った(사라, 사라)」, 「どいた、どいた(비켜라, 비켜라)」등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완료를 요망하는 것으로, [03]이라고 생각된다.(16.3의 주 1참조)

41) 「발견의 タ」라고 불리는 「あ、着ていた(아, 입고 있다)」와 같은 것은, [22]나 [44]이면서 [33]이나 [55]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인지적완료」이다. (13.8참조)

[33] 현재완료 · 현재진행완료(가까운 과거)⁴²⁾(～しタ／していタ)

언급선은 위쪽이 약간 원쪽으로 치우친 선(=시제는 夕形)이 된다.

[55] 현재결과상태완료(가까운 과거)(～していタ)

언급선은 위쪽이 약간 원쪽으로 치우친 선(=시제는 夕形)이 된다.

図17-1에 있어서, 현재점 10의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벤트의 개시시(開始時) 그 때를 현재로 하여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10은, 개시직전의 시점이다. (개시 혹은 완료와 같이, 사태의 국면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순간 그 때는, 현재시점으로서의 언어표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11]과 같이 같은 숫자가 늘어서 있어도,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이다.

같은 식으로, 현재점 30, 50은 이벤트의 완료시 그 때가 아니라, 완료직후의 시점이다.

[33][55]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이다.

③ 과거 10위의 숫자 > 1위의 숫자

10위의 숫자가 1위의 숫자보다 클 때는 과거를 나타낸다. 언급선은, 원쪽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시제는 夕形이 된다.

[22'][32][42][52][62]과거진행(～していタ)

[43][53][63]과거완료, 과거진행완료(～しタ／していタ)

[44'][54][64]과거결과상태계속(～していタ)

[65]과거결과상태완료(～していタ)

[66']과거결과기역(～していタ)

[4◎][5◎][6◎]과거이벤트(～しタ)

[21][31][41][51][61]과 같이 과거의 개시를 다루는 시간관계는, 연체(連体)와 가상(仮想)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6. 3참조)

42) 버스가 아직 눈앞에 온 것이 아니고, 멀리 보이는 것만으로 「バスが来た(버스가 왔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일견 비합리적이지만, 「あそこへ(저쪽에)」 온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완료이다. 「あそこへ(저쪽에)」가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학교문법의 동사활용형

동사·태사(態詞)·조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형식이 붙는다. 학교문법에서는 동사와 이것들을 조합하여, 「활용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형식의 종류		형식	학교문법
속성사	부정사	-(a) na, k-	미연형
	태사	-(s) as-	미연형
	수동태사	-(r) ar-	미연형
	혁용태사	-e-	-
묘사사	실현예상묘사사	-(y) oo	미연형
	비실현예상묘사사	-(u) mai	-
	포함실체수식묘사사	-(i)	연용형
	연속묘사사	-(i)	연용형
	기본묘사사	-(r) u	종지형
	실체수식묘사사	-(r) u	연체형
	가정묘사사	-(r) eba	가정형
	명령묘사사	-e/-ro	명령형
	전개묘사사(기(基)에)	-a (ba)	-

동사와 위의 표안의 형식의 부분과 조합하여 학교문법의 「활용형」이 생긴다. 연용형, 종지형, 연체형, 명령형은 일단 타당하나, 미연형, 가정형에서는 형식을 무의미하게 분할하여 버리고 있다.